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사	빛고을 연금이 사회봉사단
동광주지사	사랑모아
북광주지사	나눔미 봉사단
전주지사	전주 연금이
익산지사	솜리사랑회
정읍지사	나눔봉사단
남원지사	남원연금디딤돌
순천지사	순천사랑회
여수지사	사파수
목포지사	유달봉사단
해남지사	나눔봉사단
제주지사	아름다운 나눔이 봉사단
광주콜센터	아사모



광주지역본부

빛고를 연금이 사회봉사단 _ 광주지사

주요활동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
- 소년소녀 가장 후원
- 자매결연마을 후원 및 일손 돕기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랑모아 _ 동광주지사

주요활동

- 무료급식시설 사랑의 식당 배식 봉사 및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서로 도우며, 함께 생활하며

광주지사는 2002년부터 독거치매노인 시설 「수덕의 집」(나주시 다도면에 대한 후원을 시작으로 2005년 9월에 지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빛고를 연금이 봉사단'을 발족하면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광산구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55명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후원 가정의 폭설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6년에는 장애 아동 복지시설 「백선바오로의 집」(광산구 삼거동) 후원과 시설 내 청소 및 정원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영광군 법성면 신두암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 하고 안마용의자 등의 물품 기증과 함께 경로잔치를 열어 드렸으며 농번기에는 감자 캐기 등 일손 돕기에 참여하였다. 또한, 그해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기 후원을 시작하였고 광산구 「하남사회복지관」과 결연을 하여 매주 사랑의 식당 배식봉사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대한 후원도 추진되고 있다.

2007년도에는 결손 가정 초등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1년간의 공부방 멘토, 광산구 「하남사회복지관」 봉사단이 후원, '외국인근로자 아시아 문화한마당'을 위한 헌옷 등 재활용 물품 기증 등 특별한 행사들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해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을 때 빛고를 연금이 봉사단을 비롯한 지역본부 봉사단 50여 명이 영광군 백수읍 피해지역을 찾아 타르제거 활동에 나서 상심에 젖은 어민들을 위로하였다.

이 밖에도 빛고를 연금이 봉사단은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인 「애일의 집」정기 후원 등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서로 도우며 함께 생활하는 희망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랑의 밥 퍼드려요

동광주지사 '사랑모아' 봉사단은 2008년 3월 27일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랑의 식당'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행사에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식당'은 일일평균 6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데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이 대부분이다. 사랑모아 봉사단은 '사랑의 식당' 입구에서 어르신들 친절하게 맞이하기, 배식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하기, 식사 후 식기 수거 및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분기마다 봉사활동을 위해 '사랑의 식당'을 방문할 때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금(금 100,000원)을 전달하여 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분기마다 지속하여 온 이러한 '사랑의 밥 퍼주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회복지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높아져 사회서비스기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찾아가서 봉사하는 연금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친절한 공단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주요활동

- 사랑의 연탄 배달
- 소년소녀가장 등 정기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추운 겨울 녹일 사랑의 연탄 배달

북광주 지사 '나누미 봉사단'은 2007년부터 관내 북구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의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급식 때 봉사단원들이 직접 급식 도우미로 나서으로써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2007년 10월에는 무의탁 독거노인들 250명을 모시고 인근 식당에서 경로잔치를 하면서 한 끼 식사라도 즐겁게 드시도록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누미 봉사단은 주 1회 사무실 주변 거리청소를 통해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연말에는 관할 구청의 도움을 받아 빈민촌의 2가구를 선정하여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직접 연탄을 배달하였다. 이러한 사랑의 연탄 배달은 2007년 이후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나누미 봉사단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광주시역본부

전주 연금이 _ 전주지사

주요활동

- 자매결연마을 후원 및 일손 돕기
- 무의탁노인 급식 지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는 봉사단으로 거듭 날터

전주지사 '전주 연금이' 봉사단은 농번기가 되면 2007년 1사 1촌 자매결연한 완주군 송학마을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거둔다. 2009년 6월에도 마늘, 양파 등의 수확에 참여하였으며, 마을회관에 생활물품을 전달하여 자매결연마을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전주시의 자원봉사단체인 「행복한 가게」에서 주관한 편부모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사랑의 쌀 나눔행사'에 동참하여 봉사단원들의 소중한 뜻이 담긴 소정의 쌀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한편, 2009년 8월에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 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34개 기관이 모여 '자원봉사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봉사의 질적 수준과 봉사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고, 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전주지사 전주 연금이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공단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솜리사랑회 _ 익산지사

주요활동

- 재가장애인 후원 및 가사지원, 말벗 봉사
- 익산시장애복지관 후원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장애인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익산지사 봉사단 '솜리사랑회'는 2009년 1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봉사활동 협약을 맺고 장애인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은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기에 솜리사랑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솜리사랑회는 2009년 3월부터 매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천한 재가 장애인 가정을 직접 찾아나서 가사지원, 말벗 등 현장 봉사활동과 함께 이불, 선풍기 등 재가 장애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20만원 상당)을 후원해 왔다.

봉사단원들은 재가 장애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목욕과 집안청소 그리고 빨래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내어 해결해 주었다. 특히 2009년 7월에는 지적장애와 우측상지 절단장애를 가지고 있는 익산시 금마면의 이○○씨 가정을 방문하여 유리 창문이 파손되어 여름철 모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충망을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익산지사 '솜리사랑'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통해 보람을 찾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모두 서로 만족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주요활동

- 장애인시설 현장 봉사활동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독거노인 후원



사랑, 나눔! 말보다는 실천

정읍지사 '나눔봉사단'은 사랑, 나눔, 행복, 기쁨의 4개조를 편성하여 매월 1회 장애인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은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 전문적인 상담을 비롯하여 치료와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들의 심신 안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20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나눔봉사단은 2009년 7월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장애우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일반인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사회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8월에는 장애우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나눔의 집」 건물 내부 물청소를 하였다.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일했지만, 장애우들의 해맑은 얼굴을 맞이하자 “피로가 금세 가셨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광주지역본부

남원연금디딤돌 _ 남원지사

주요활동

-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순천사랑회 _ 순천지사

주요활동

- 장애인 단체 후원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 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소중한 나눔 무한 행복

남원지사 봉사단 '남원연금디딤돌'은 2008년 9월 5일 남원시 노암동에 거주하는 양○○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양○○ 부친은 1999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몸이 불편하신 모친과 여동생과 같이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결손가정이다. 또한, 모친은 소뇌 위축증으로 언어장애와 보행 장애를 보유하고 있어 남편의 산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다.

남원연금디딤돌은 2008년 9월 5일 양○○ 가정을 방문하여 송편과 제수음식을 준비하여 남원시 송동면에 소재하는 부친묘소에 가족이 성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몸이 불편한 모친은 휠체어로, 때로는 업어서 현장까지 동행하게 하였고, 성묘 후에는 남원 시내 소재하는 광한루원을 방문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러한 남원연금디딤돌의 활동은 MBN방송의 2008년도 추석절 특집 '소중한 나눔 무한 행복'에 방송되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도 하였다. 양○○ 자매는 더욱더 어머니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학생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또한, 봉사단은 2008년 12월 24일 양○○ 가정을 방문하여 쌀과 라면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그간의 생활을 이야기하며 정을 주고받았다.

남원지사 남원연금디딤돌은 '소중한 나눔 무한 행복' 참여와 방송을 시청하며 진정한 친절은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훈훈하고 정겨운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숨은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웃과 함께하는 참사랑실천

순천지사 봉사단 '순천사랑회'는 순천시 장애인 단체(6개소)와 협약식을 갖고 장애인과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순천시장애인협회는 단일 단체가 아닌 장애특성이 다른 6개(지체, 정신, 중증, 시각, 농아, 척수)의 단체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고자 2009년 4월 6개소의 장애인 협회장을 지사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단체별 의견 공유를 통해 공단의 지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9년 4월 '시각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순천시 연합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모두 참여하여 각 대회를 후원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09년 7월에는 「순천장애자립재활센터」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강좌 장소로 지사 회의실을 대여하고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설날에는 지적장애어린이 20여 명이 수용된 순천시 상사면의 「참샘동산」 및 장애노인 수용시설인 「섬돌요양원」을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하고 위로하며 어린이, 노약자와 시간을 함께하는 등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참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활동

- 무인탁노인시설 정기 후원
- 소년소녀가장 정기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랑이 파도치는 여수

여수지사 '사파수' 봉사단은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1시간씩 '국민연금 한자교실'을 운영하였다. 저소득 자녀 11명을 대상으로 공단 여수회관 회의실에서 한자를 학습지도하였으며 교재와 다과 등의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교육 효과를 높였다. 봉사단원 중 국가공인 한자1급 자격증을 소지한 박경익 대리의 열성적인 학습지도로 학습아동 중 3명이 '한국어문화'가 주최한 6급한자능력시험에 합격하여 그 결실을 보았다. 봉사단의 작은 정성을 모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한편 봉사단은 2009년 9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미평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봉사를 하게 된다. 봉사단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복지 일꾼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이밖에 사파수 봉사단은 무의탁노인복지원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숨은 일꾼으로 온 힘을 다한다는 각오이다.



광주지역본부

유달 봉사단 _ 목포지사

주요활동

-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소년소녀가장 후원
-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나눔봉사단 _ 해남지사

주요활동

- 자매마을 특산물 판매지원 및 농촌 일손돕기 행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사랑과 정성을 가득담은 도시락 배달의 기수 유달봉사단

목포지사의 '유달 봉사단'은 2005년 9월 설립 이후,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인 「명도복지관」 후원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6년 12월부터는 봉사단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면서 성금기부 위주의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1일 평균 120여 명이 이용하는 「성모재가노인복지원」에서 설거지 봉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작은 꽃들의 집)에서 미술 치료센터 등 3곳의 치료센터로 이동을 도와주는 차량이동 봉사활동을 하였다.

2008년 2월부터는 「성모재가노인복지원」의 요청에 따라 설거지 봉사를 도시락 배달로 변경하여 활동을 해 온지 20개월째이다. 매주 목요일 봉사단원이 각 동별 총 80여 개의 도시락을 차량운행과 함께 직접 배달하고 있다.

목포 시내의 지역에 따라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과 산동네가 많아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꾸준히 해줄 봉사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시락 배달 안내를 담당하는 수녀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최근 들어 복지관이 더욱 힘들어진 것은 후원이 줄어든 것보다도 약속된 시간 내에 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해줄 봉사자들이 매년 줄고 있어서다."라는 말씀에 어느덧 자원봉사활동에 봉사단원들의 사명감이 더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목포지사 유달 봉사단은 도서지역 주민에게도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와 연계하여 생활이 어려운 유족연금수급자에게 생활물품을 후원하였고, 농번기에는 마늘 파종과 고춧대 제거 등 일손 돕기로 섬 지역까지 사랑의 손길을 펼친 바 있다.

나누는 정! 누리는 기쁨!

해남지사 '나눔봉사단'은 2004년 10월 전남 해남군 황산면 성만마을과 농도상생(農都相生)의 정신을 바탕으로 1사 1촌 자매결연을 하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하여 농촌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나눔봉사단'은 자매마을 특산물인 호박 즈과 김장용 절임 배추를 공단 내부 인터넷 알뜰시장에 게시하여 판매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를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돕고 있다.

2009년 5월 8일에는 지사장을 비롯한 봉사단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효도잔치행사를 마을주민들과 함께 열고 작은 기념품을 선물하였다.

혹서기와 양파수확기를 맞이하여 2009년 6월에는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려고 봉사단원 10명이 자매마을을 찾아 양파 캐기와 묶기, 냉동 창고로 이동 등 양파 수확을 도왔다. 봉사단원들은 마을주민과 함께 땀을 흘리며 결연의 정을 나누고 농촌 봉사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해남지사 나눔봉사단은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 국민연금 해남지사의 위상을 더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나눔이 봉사단 _ 제주지사

주요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마을 및 1사촌 결연마을 불우이웃 후원
- 국민연금 이웃사랑 장터 운영(연말)
- 무의탁노인 등 급식보조 및 도시락 배달 봉사
- 기타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등



아사모(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_ 광주콜센터

주요활동

- 기초수급자세대 청소년 후원
- 연말 사랑의 연탄, 난방유 전달 등
- 사회복지관 배식 도우미 활동



아끼고, 나누고, 도우며 함께해요, 이웃사랑!

국민연금 제주지사의 '아름다운 나눔이 봉사단'은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과 실천의 열린 마당을 통해 참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는다. 2005년 이후 해마다 연말이면 아름다운 가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민연금 이웃사랑 장터'를 개장하여 직원들이 손수 기증한 물품과 각 계에서 기증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일 명예 판매점으로 활동하면서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불우 이웃돕기(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였다.

2009년 7월에는 지사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불우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을 보다 실천적으로 강화하자는 결의를 모아 자발적인 봉사활동 희망자 16명을 모집하고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봉사단을 3개조로 나누어 매월 1개조가 넷째 주 목요일에 순번제로 활동하며, 봉사활동 협약을 맺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세민과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급식을 보조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제주지사의 아름다운 나눔이 봉사단은 이처럼 공단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이바지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해 주신 할머니

광주콜센터 '아사모(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봉사단은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기초수급자세대 청소년 2명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액을 후원하여 꿈나무 연금이들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꿈을 잃지 않고 이루어 가도록 돕고 있다.

2008년 12월에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아 광산구의 저소득층 어르신 10여 세대를 방문하여 따뜻한 온기로 추운 날씨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난방용 연탄을 각 가구당 200장씩 지원하였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는 할머니로 인해 봉사의 기쁨을 맛보았고, 다리 관절이 좋지않아 이웃주민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연탄을 갈 수 없는 할머니를 보고는 연탄을 지원하면서도 더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봉사단원들은 이처럼 노후가 불안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면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으로서 더욱 많은 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밖에도 2008년 12월 아사모 봉사단은 폭설로 인해 인삼밭의 차광시설 등이 붕괴되어 피해를 입은 농민을 찾아가 위로하고 복구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우 보육시설에 난방유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